

## 신나는 호스피스활동을 위하여...

권 경 숙 · 요안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98년 7월 어느 날 성모 병원 일반 봉사를 하던 중 원목 수녀님의 권유로 어렵פות이 이름만 듣던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수녀님께서 이미 미국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간호사 출신 봉사자와 첫 포문을 여시고, 본격적인 환자방문이 시작되었다. 봉사자들은 수녀님의 영적지도와 함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던 중 수녀님께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요양을 떠나시게 되면서 봉사자들의 동요가 시작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병원이 노조쟁의로 파업상태에 이르러 호스피스 봉사활동이 힘들어 지면서 봉사자들이 한 둘씩 이탈을 하게 되었고 원목실의 신부님, 수녀님께서 인사이동으로 떠나시게 되었다. 그래도 봉사자들은 고통 받고 있는 환자가 있기에 남아있는 12명의 적은 자원이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그 후 호스피스에 관심이 많으신 신부님이 부임하셔서 호스피스병동을 개설하게 되었다. 그때 우리는 매우 기쁘고 행복한 봉사를 할 수 있었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 호스피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었던지 환자들은 '죽으러 가는 병실에는 안 가겠다'고 하면서 호스피스 병동 입원을 거부하였고, 결국엔 호스피스 병동은 유명 무실한 상태에서 임기를 마친 신부님마저 떠나

시게 되었다. 외부에서는 호스피스 봉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 상황이 우리 봉사자에게 부담이 되었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환자 방문을 계속하였다. 그 후 지도자가 없는 봉사활동 1년여 정처 없는 표류가 아닌지 걱정되던 중 지난 2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호스피스 분야의 거목이신 김혜자 수녀님이 오신다는 사실이었다. 대전 성모병원에 호스피스를 우뚝 세워주실 거라는 믿음과 기대감으로 마치 흥재한 기분이다.

이제 우리 대전 성모병원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원목 신부님과 더불어 능력 있는 수녀님의 지도를 받으며, 일주일에 3번 이상의 봉사도 마다않고 기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6년 전 뿌려진 미소한 씨앗이 활기차게 자라나는 요즘은 봉사하면서 살 맛이 납니다. 대전 성모병원 호스피스가 우뚝 당당히 설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